

## 日, 중전기기 감소세 지속

일본전기공업회가 조사 발표한 2000년(2000년 4월~2001년 3월) 전기기기 생산전망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기기 분야가 중전기기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정보기술) 관련 및 반도체 제조장치분야의 경기호조 파급효과가 민간 설비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중전기기 분야는 소형기기를 중심으로 회복조짐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회전전기기기, 정지전기기기계기구, 개폐제어장치 및 기기 등은 원동기와 함께 내수 및 수출이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본격 회복은 200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00년 중전기기 전체 생산액이 3조 4천억엔(전년대비 94.3% 수준)으로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발전용원동기

보일러 및 증기터빈은 내수 및 수출감소로 2자리수 감소가 예상되나 수력발전용 터빈은 전년에 이어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 회전전기기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교체수요로 단층·유도전동기 공히 5년만에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기기(휴대전화, PC) 시황호조로 반도체 제조장치의 신규투자가 확대, 서보모터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력품목인 교류전동기와 소형전동기는 감소될 전망이다.

### ○ 개폐제어기기

분전반 및 저압개폐기, 저압차단기는 회복기조가

계속될 것이나 감시제어장치 및 폐쇄형 배전장치, 고압개폐기는 당분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용 전기기기는 버블기에 구입한 제품들이 교체기를 맞아 교체수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신축주택 착공도 견실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플러스 요인으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소득환경이 불투명해 교체시기를 뒤로 미루는 마이너스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2000년 가정용 전기기기 전체 생산액은 2조4천억엔으로 전년대비 101.2%의 미증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주요 제품별 동향은 다음과 같다.

### ○ 에어컨

작년 8월이후 국내출하가 견조세를 보이고 있고 신설주택 착공 증가로 인한 신규수요도 기대되고 있어 생산량은 757만대로 전년대비 2.2%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전자레인지·전기밥솥

국내출하는 고급품이 중심으로 약간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감소와 수입증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전자레인지 생산량은 263만대로 4년째, 전기밥솥은 550만대로 6년째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냉장고/세탁기

냉장고는 대형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교체수요는 활발하나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 현상은 예외없이 진전되고 있어 457만대로 전년수준을 유지하는 정

도이며 세탁기도 '99년을 거점으로 완만한 회복세  
 에 있으나 해외요인으로 인해 424만대로 전년수  
 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日, 對美 변압기 수출 기지개

일본의 종합전기 메이커들이 미국에 대한 전력  
 용 트랜스(변압기)의 수출 재개에 나서고 있다. 트  
 랜스는 십수년에 걸쳐 덤핑 제재를 받아 일본 메  
 이커들은 사실상 대미수출을 이제까지 해오지 못  
 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일본 메이커들에 대한 제  
 재가 잇따라 해제됐으며 이에 따라 일본 메이커들  
 은 수출 재개에 나서고 있는 것. 히다치(日立) 제  
 작소는 최근 들어 수출재개 제1호의 대형 안전을  
 수주했으며 도시바와 산요전기도 미국 수입업자들  
 과 활발한 상담을 벌리고 있다.

일본 종합전기 메이커들의 전력용 트랜스는 오  
 래 동안에 걸쳐 덤핑 품목의 지정을 받아 왔으며  
 이로인해 미국 시장은 일부 유럽계 메이커들의 독  
 점 상태에 놓여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독립계 발  
 전사업자(IPP)의 대두로 중전기기의 수요가 활발,  
 발전기 분야에서는 일본 메이커들에게도 다수의 주

문이 들어왔었다. 트랜스도 미국시장에서는 공급부  
 족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일본 메이커  
 에 대한 제재 해제의 요인이 되었다. 제재 해제가  
 된 직후부터 일본 메이커들에 대한 복수의 상담이  
 들어 왔으며 이에 따라 히다치가 가장 먼저 주문  
 을 받아 대미수출에 나서게 되었다. 히다치가 이번  
 에 수주한 것은 30만 볼트급 6기와 3기의 플레이트  
 로 이 두건 모두다 컨설팅 회사인 래시용이 발주  
 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안전은 표준적인 제품을 복수 주문  
 하는 대신에 가격은 일본 국내의 반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국내에선 전력기기 수요가 대  
 폭 감축되어 있는 상태로 특히 송전과 변전의 대  
 형안전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일본 대형메이커  
 들은 적극적으로 대미 수출에 나서고 있다.

## 가와사끼重, 2만kW급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일본의 川崎重工業이 2만kW급의 발전용 가스터  
 빈을 개발했다.

공장의 자가발전 외에 소규모 IPP(독립발전사업  
 자)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대형 발전설비 및 전력  
 공급망의 건설이 어려운 지역용으로 분산형 전원

으로서 판매한다.

종래에 자가발전 등의 산업용은 1만kW 이하의  
 중소형 가스터빈이 주류이며, 전력회사가 사용하는  
 10만kW 이상과의 사이에 해당하는 2만kW 클래  
 스는 중소형기를 여러대 접속하는 케이스가 대부분

이었다.

새로운 가스터빈은 同社가 1996년에 개발한 7,000kW급의 'M7A-02'가 베이스이다.

同 기종은 열효율이 약 35%, 배출가스의 질소 산화물 농도가 22.9PPM으로 클래스 최고 수준의

성능이며, 신형 가스터빈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

10월경에 시험운전을 개시하여 2002년까지 시중에 투입할 방침이다.

## 미쓰비시전기, 중소용량 변압기용 교환기 개발

미쓰비시전기는 이번 7만7천V~2만5천KVA급의 중소용량 가스절연 변압기용으로 가스절연부하담 교환기를 개발했다.

새로운 회로 및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채용에 의해 소형화, 저가격화를 실현한 점이 큰 특징이다. 미쓰비시에서는 이 교환기를 삽입한 가스절연변압기를 올 여름에 제품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의 변압기메이커에 대해서도 교환기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떠나갈 방침이다. 이 교환기는 변압기에 설정돼 있는 전압을 부하운전 중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개폐장치로서 변압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품의 하나로, 변압기탱크 가운데 설치돼 있다.

이번 개발한 것은 정격스텝 전압 7백V, 정격통과전류 2백50A, 최대스텝 점수 19점으로, 주로 중소용량의 빌딩변전소용 변압기, 일반산업용 변압기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최대 특징은 회로 구조방식에 1축적결구동에

의해 교체개폐기와 타프선택기를 일괄 구동하는 '1저항 2진공스위치방식'을 세계 처음으로 채용한 점이다. 이 때문에 구조가 간소 콤팩트화 할 수 있고 종래 적용기에 비해 약 30% 감소(높이 535mm로 22% 감소, 폭 350mm로 35% 감소), 질량 약 25% 감소(170kg)로 소형 경량화를 실현했다. 동시에 원가면에서도 12% 저감했다.

앞으로 자사의 가스절연변압기에 채용, 출하할 예정으로 그 첫 번째는 오는 8월에 낼 예정이다. 동시에 이번 채용한 신기술을 상위 수준에도 적용한 제2세대의 제품을 실용화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1, 2년 내에 시판할 계획이다.

또 국내의 변압기시장은 격심한 가격경쟁이 계속돼, 원가절감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교환기 등의 주요부품의 아웃소싱을 행하는 변압기 메이커가 늘어나 실제 이미 수개사로부터 견적 상담이 오고 있다. 그 때문에 미쓰비시에서는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외판에도 힘을 쏟고 있다.

## 中, '99년 수출입 사상최고 기록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99년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3,606억달러

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82년이후 16년만에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98년 침체기에서 완전히 회복했다.

이중 수출은 상반기에는 전년 동월대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지만 하반기들어 회복세로 전환, 과거 최고치인 1,949억달러에 달했다.

한편 수입도 1,657억달러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수입 급증으로 다소 상쇄되기도 했지만 약 300억달러의 흑자를 유지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99년의 GDP 성장률은 7.1%로 정부목표 7% 성장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 목표가 달성된 것은 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78년 개혁·개방이후 유례없는 디플레이 상태에 빠져 있다. 소매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장래 불투명한 상황을 예측한 소비절제 영향으로 '99년 11월까지 26개월,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됐다.

'99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2.9%, 1.3% 감소했다. '99년 소비재 소매총액의 신장세는 동기 대비 6.8% 증가로 다소 늦추어졌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신장세는 단지 7.8% 증가했고 민간투자도 약세를 띠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역흑자는 '99년 중국경제의 유일한 뉴스꺼리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호조 요인으로는 가공무역기업의 완성품 수출 회복을 들 수 있다. '90년대 전반까지 지속되어 온 투자붐에 편승해서 홍콩, 미국, 일본 등은 현지 생산체제를 정비해 왔지만 아시아 통화·경제위기에 따른 각국의 경기바닥세로 중국의

수출은 미미했다.

그러나 '99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일본, 홍콩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다시 증가했다. 또한 '98년에도 계속 미국, 유럽에 대해 수출 호조를 유지한 것은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등의 정부의 수출장려책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상대국을 살펴보면 과거 1위의 자리를 지켜온 홍콩이 '99년 전반의 심각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처음으로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전락했다.

그러나 홍콩의 경기 상황(경제성장률은 '99년 1~3월의 마이너스 3.2%에서 6~9월에는 45% 성장)에 따라 '99년 하반기에는 매월 30억달러의 수출액을 유지했다.

아시아 통화·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일본(3위), 아세안(9개국, 5위), 한국(6위)에 대한 수출액은 각각 '98년에 전년대비 6.7%, 13.6%, 31.3% 감소로 부진했지만 '99년에는 9.2%, 11.1%, 24.9%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EU(4위)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2대 수출상품중 기계, 전기제품(26.7%)의 수출액 신장률이 19.4%로 순조로워 '98년의 436억달러보다 약 80억달러 윗돌았다. 한편 방적원재료 및 제품(21.2% 점유)은 2.0% 증가했지만 이는 '98년에 감소한 분에 대한 반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입은 '98년보다 약 250억달러 증가했다. 수입 급증의 원인으로는 ▲전술한 가공무역의 증대로 인한 원재료·부품수입 증가 ▲'98년의 전년대비 감소분에 대한 반동 ▲위안화 환율이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보다 안정되어 거래조건이 개선되고 수입

● '99년 중국의 주요국·지역별 수출입액

(단위 : 천달러, %)

	국가·지역	수 입			수 입			수 지
		금 액	점유율	신장률	금 액	점유율	신장률	금 액
1	일 본	32,399,008	16.6	9.2	33,768,248	20.4	19.4	▲1,369,240
2	미 국	41,945,761	21.5	10.5	19,479,967	11.8	15.4	22,465,794
3	E U	30,210,549	15.5	7.3	25,465,462	15.4	22.7	4,745,087
4	홍 콩	36,890,629	18.9	▲4.8	6,892,376	4.2	3.5	29,998,253
5	아 세 안 (9)	12,170,455	6.2	11.1	14,871,210	9.0	18.2	▲2,700,755
6	한 국	7,807,997	4.0	24.9	17,227,607	10.4	14.7	▲9,419,610
7	대 만	3,950,076	2.0	21.1	19,528,479	11.8	17.4	▲15,578,403
	총 계	194,931,434	100.0	6.1	165,718,009	100.0	18.2	29,213,425

[자료 : 중국 해관통계]

에 유리했었고 ▲ 밀수 단속 강화에 따라 정식 수입이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EU, 대만, 미국 순으로 '98년에 비해 대만과 미국의 순위가 바뀌었지만 모두 15% 이상 증가했다. 2년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대일 수입은 19.4% 증가했다.

주요 상품별로는 기계·전기제품이 최대의 수입 품목(38.1% 점유)으로 23.7% 증가한 631억달러에 달했다. 금속 및 금속제품(9.1% 점유), 화학공업 및 화학공업 제품(8.5% 점유)이 각각 21.1%, 27.4% 증가했다. 한편 방적원재료 및 방적원재료 제품(8.4% 점유)은 화학섬유 수입 감소로 비중이 3.2% 낮아졌다.

중국은 연내 WTO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 1월 6일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작부장의 발언에 의하면 2006년까지 6년간 수입은 매년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WTO 가입으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로 중국 국내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중미합의에 의하면 연내 가입이 실현될 경우 즉시 실행될 조치는 외국영화를 40편 수입하는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무역상황에 즉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완성품(현행 100% 내지 80% → 2006년 7월 : 25%) 등 많은 분야에서 대폭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할당 및 기타 수량제한도 철폐된다.

저렴한 외국제품 유입으로 중국내 기업이 심한 경쟁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WTO 가입을 주시해서 국내산업의 강화 및 보호를 염두에 둔 무역체제 이행이 중국 정부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러시아, 북유럽에 전력 수출

러시아 전력의 북유럽 수출이 증대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통합전력시스템사는 핀란드의 핀그리드사와 협정체결을 통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게 전력을 수송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브이보르그에 위치한 네 번째 전력 발전소에서 전력 발전도 시작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북유럽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로 인한 연간 소득이 1억달러에서 1억5,000만~2억달러로 증가, 장기적으로 3억~3억5,000만달러로 증대시킬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현재 러시아통합전력시스템사는 핀란드로의 수출을 위해 포르툰사, 삐베오우사 등 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이 회사들은 브이보르그 발전소의 전력 공급량을 모두 수송할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넓은 전력 공급망을 가진 핀그리드사와의 협정체결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러시아통합전력시스템사의 발전 전력부 부서장 유리 꾸체로프는 “현재 러시아 통합전력시스템사가 노르웨이로 진출키 위해 노르스끄 기드로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 협상이 성사되면, 러시아 전력회사는 전력을 스칸디나비아 국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통합전력시스템사는 핀란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전력 수출을 계획 중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시절 동유럽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을 위한 발전소가 세워졌으나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매년 6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통합전력시스템사는 동유럽에 있는 세 개의 노후한 변류소를 복구할 계획이며 이 변류소들로 매년 2억달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년 초에 러시아 전력회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력회사들과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에 우크라이나도 가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의 통과비용 차이로 인해 서구로의 전력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핀그리드사는 핀란드의 전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97년에 설립된 회사로 1만4,000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 對 인도, 투자 확대 전망

인구 10억의 거대한 잠재시장 인도는 지난 '90 연대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 등을 실시한 후 이제는

전세계 5대 시장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은 '99년 13억6,237만1천달러로 전년대비 18.3%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5월까지 6억2,352만3천달러로 '99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해 시장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인도 투자는 금년 4월까지 누적액 4억5,311만6천달러이며 인도의 시장 개방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對인도 비즈니스, 특히 합작투자 등을 계획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본 것이다.

#### ◇ 투자지분

인도와 거래는 우리나라 업체가 빈번히 제외받는 것이 바로 합작투자이다. 흔히 인도 업체들은 우리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데에도 먼저 합작투자를 하자고 제외해 오곤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인도 국내 시장전망이 대단히 좋으니까 귀사와 함께 합작투자로 생산시설을 설치해 공동 경영하자는 제의를 곧잘 해오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투자 관계 설정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한국 업체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먼저 인도 업체와의 일정 기간 수출 거래에 치중해야 하며 정 합작투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거래의 추이를 보아야 한다.

일단 합작투자를 계획할 경우에는 지분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인도 업체와의 합작투자에는 지분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 후 회사경영 면에서 더 큰 융통성, 영향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기술이전, 고용촉진 등을 위해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를 절대적으로 장려하며 산업 분야별로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를 100%에 가깝게 허용해 주며 그렇지 않거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 가능 한도를 낮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분야별 투자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지분을 높게 유지해야 하며 특히 주주총회시 정족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측면에서 75% 이상의 투자지분을 가지는 것이 좋다.

#### ◇ 통 관

인도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또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가 통관 문제이다. 상품 분류 및 관세율이 매우 복잡하며 서류처리 절차도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통관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인 북쪽 지방보다는 상거래와 대외무역이 활성화되고 각종 산업이 발달한 남쪽 및 서쪽 지방을 통한 對인도 수출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Mumbai를 통한 통관과 New Delhi를 통한 통관이 6~10주나 더 오래 걸린다.

#### ◇ 운송문제

운송도 역시 북쪽보다는 남쪽 및 서쪽 지역에서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며 인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형트럭 및 냉동 운송차량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워낙 광활한 국토를 지닌 국

가이기 때문에 운송업체 선정은 해당 통관 지역 사정에 밝은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 ◇ 투자 지역 고려

인도 정부는 미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 업체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미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지역일수록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원자재 조달, 통관, 운송, 유통 등의 사항이 모두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역시 산업 활동에 편리하고 각종 인적 자원, 원자재 조달, 상거래 및 수출 활동, 통관, 항만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서쪽 지역 및 남쪽 지역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지역일 것이다.

#### ◇ 인적 자원

인도의 기계, 엔지니어링, 일반 소비재 생산 분야에 투자 진출한 외국 업체들은 인도 현지 인력의 고용 비용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효율성은 다른 아시아 국가 인력에 비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등 정보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 진출한 업체들은 인도 인력의 수준이 서구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경우 인도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현

지 피고용인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현지인들은 외국인 투자 업체일수록 자본이 풍부하며 특히 보수 면에서 국내 업체보다 더 좋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 ◇ 부패

인도의 관공서에는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처럼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 행정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공서와의 접촉시 특히 서류 제출시 하자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어려운 관공서 접촉을 전담하는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 ◇ 전력

인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업체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꼽고 있을 정도로 인도에서는 전력공급이 생산 활동에 생명과 같다. 이러한 전력을 그나마도 가장 잘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인도의 서쪽 지역이다.

그러나 전기 사용 비용이 매우 높으며 전기의 질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전력 분야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다수의 발전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 對파나마 전력기자재 수출전망 밝아

파나마 정부가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이후 민영화 된 전력 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향



후 파나마 전력기자재 시장전망이 밝아 우리 수출 업계의 관심이 요망된다.

현재 관련업계 추산에 따르면 파나마의 발전기, 터빈, 변압기, 전선 등 전력기자재 수요규모는 6천 만달러이며 파나마 전력기자재 국내산업이 매우 취약한 관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 전력기자재 산업은 저전압용 전선을 생산하는 Alambres y Cable d Panama 1개에 불과하며 이 회사는 파나마 저전압용 전선 수요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나마 전력기자재 수요는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의 기반시설 투자와 기타 상업용, 주택용 전력기자재 그리고 파나마운하관리청의 전력기자재 시설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파나마 정부는 '98년 파나마전력공사인 IRHE를 4개 전력생산회사, 1개 송전회사 및 3개의 전력공급회사로 분리해 이중 7개사를 매각했다. 아직까지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은 송전회사이며 파나마 정부는 이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국영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주로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외국기업에 매각되었으며 이들 민영화된 전력산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전력기자재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다. 현재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전력기자재 소요를 입찰에 의해 구매하고 있으며 대규모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는 턴키베이스로 발주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미 전체의 전력배전망을 서로 연결하는 SIEPAC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즉 '87년 이후 중미 전력회사들은 중미의 전력배전망을 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SIEPAC)의 검토를 시작했으며 '94년 중미의 전력위기로 이 프로젝트는

● 16/500KVA 변압기 수입동향

(단위 : US천\$)

국 별	1997	1998	1999
미 국	2,144	2,406	1,832
멕시코	11	111	480
캐나다	7	0.2	-
일본	-	0.2	-
브라질	1,488	-	-
스위스	-	-	905
콜롬비아	-	-	340
기타	78	108	51
총 계	3,721	2,626	3,608

[자료 : 파나마 감사원]

주 : HS 850433 기준

중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파나마 전력기자재 수입시장 특성은 대규모 전력 관련회사들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수입이 대폭 증가하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수입이 급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파나마가 소규모 국가로서 꾸준한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은 파나마 관련업체들이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입찰에 의해 발주업체 사양에 의해 생산되어 대량 수입된다.

한편 소규모 상업용 발전기, 상업용 및 주택용 변압기 등과 같은 제품은 관련업체가 재고를 보유해 소비자에 판매, 설치해 주는 제품으로 대규모 수요처 발주 제품과는 달리 수입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활발한 HS 850433 기준 16KV/500KVA 변압기의 수입동

향을 보면 표와 같다.

파나마의 16KV/500KVA 변압기 수입은 '99년 전년대비 37.4% 증가한 36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18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해 50.8%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이는 전년대비 23.9%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99년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와 스위스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수출이 유망한 품목은 변압기와 안정기(stabilizer), 전선 등의 전력기자재이다. 특히 새로운 발전소와 지역 송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각종 종류의 변압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변압기도 꾸준한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케이블, 컨덕터 등도 수출이 유망하다. 이 부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해 민영화된 전력산업에 대한 납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들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에이전트 능력보다는 소요 물품의 품질과 가격 등 경쟁력에 의해 납품이 결정되므로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시장진출이 쉽다.

#### ※ 수입상 명단

##### ■ 발전기

- Transporte y Equipos, S.A.  
P.O. Box 6-595 El Dorado, Panama  
Tel : 507-229-4277  
Fax : 507-229-4291  
Contact : Mr. Eduardo Medina, General Manager
- Distribuidora Colaba, S.A.

P.O. Box 8121175 Panama 1

Rep. of Panama

Tel : 507-290-2902/2914

Fax : 507-290-2915

E-Mail : distribuidoracolaba@usa.net

Contact : Mr. Hermel Stofer Guevara

- F. Icaza & Cia., S.A.

P.O. Box 55-0877 Paitilla

Rep. of Panama

Tel : 507-229-3377

Fax : 507-229-3128

Homepage : www.ficaza.com

Contact : Mr. Florencio Icaza, General Manager

##### ■ 변압기

- Electriza, S.A.

P.O. Box 005363 Panama 6

Rep. of Panama

Tel : 507-261-9255

Fax : 507-261-4930

E-Mail : eacast@sinfo.net

Contact : Mr. Edgardo Castellanos, General Manager

- EQUIPTEC, S.A.

P.O. Box 8236 Panama 7

Rep. of Panama

Tel : 507-226-8877/8183

Fax : 507-226-4622

E-Mail : aalfaro@sinfo.net

Contact : Mr. Antonio Alfaro, General Manager

- Servicios Electricos, S.A.

---

P.O. Box 9757 Panama 6  
Rep. of Panama  
Tel : 507-225-0200

Fax : 507-227-3651  
Contact : Mr. Carlos Chandler, Sales  
Manager

전기사용을 즐입시다.

